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 2025년 새해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를 분별하여, 그 뒤에 강력히 서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 특별히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2)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의 작은 은사였던 “물매”를 통해서도 주님은 강력한 적을 무너트릴 수 있게 하십니다. 아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2025년 새해에, 우리 가정의 권속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직장에서의 승진,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등 우리가 내세울 만한 무기의 강력함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의 유무를 떠나, 소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칼이 없어도 주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3)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위의 말씀들을 붙들고 내가 적용하고 결단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예배에 모인 가족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봅시다. 이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기도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순전한 믿음과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합심기도를 합시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025년

선

가정예배지



사도행전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시옵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설 명절 가정에배지

온 가정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아래의 글을 읽어가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한 분이 대표하여 간단히 이 예배를 이끌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후 온 가정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통성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경 봉독

사무엘상 17장 41-49절

말은이

- 41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 42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 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 44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 46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 47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 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 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 나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갑시다.

다같이

<사무엘상 17장>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의 군사들 앞에 선 장수인 골리앗은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40일 동안 대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모욕하며, 자신과 싸울 용사를 내보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 전쟁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각 인물을 살펴보면 그 당사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① 블레셋 장수, 골리앗

당시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약 285m)이었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약 57kg)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강력한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적장 골리앗은 전장에 나온 다윗을 업신여기며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43절)’고 무시하며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능욕은 곧 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저주한 것 과도 같습니다.

②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 골리앗의 40일간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그의 앞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용기 있는 자가 나타나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을 찾아왔을 때, 그의 어린 걸모습만을 보고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33절) 사울 왕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군사들도 스스로 나서지 못하고 초조하게 눈치만 살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분노하며, 당장 전장에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소년 다윗

아버지의 명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전장에 들어왔던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23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을 받는 소년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하였던 물매를 이용하여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잘랐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어린 소년의 믿음과 용기에 도전을 받아, 적들과 싸워 크게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1)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강력함에 만족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도 강력한 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선은 하나님으로 총만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